

# 가족·친구 함께 남도 속살 체험...가을도 함께 걸었다



건강걷기 출발~

지난 9일 2013 가사문화권 그린(Green) 자전거 한마당 행사 일환으로 열린 건강걷기 행사에서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출발 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걷기행사는 광주 호수생태공원을 출발해 환벽당~평모들녘~충효 샘길을 지나는 2.5km 구간에서 진행됐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가사문화권 그린 자전거 한마당' 500여명 성황 광주~담양 5km 구간, 빗속 만추의 정취 만끽

남도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2013 가사문화권 그린(GREEN) 자전거 한마당'이 지난 9일 광주 호수생태공원과 담양 가사문화권 일대에서 펼쳐졌다. 광주일보 주최로 열린 이날 한마당은 자전거 동호인 150여명을 비롯해 건강걷기 참여자 300여명 등 총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전거 사랑 행진과 건강걷기 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광주시 사이클 연맹이 주관하고,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 생활체육회 트레킹 연합회 이 후원한 이번 한마당은 크게 ▲빛허겨 가는 농촌의 정겨운 풍광을 직접 느끼는 '농촌사랑' ▲가족애를 나누는 '가족사랑' ▲가사

문화권을 체험하는 '문화사랑'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자전거 사랑 행진코스는 광주 호수생태공원을 출발해 가사문화권 삼거리~지곡리 삼거리~매봉로~금산교~충효 어린이집~송강로~충효제~충효 암버드나무를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 오는 5km 구간에서 진행됐다. 걷기대회(2.5km)는 광주 호수생태공원에서 출발해 환벽당 삼거리~환벽당~평모들녘~광주 동초동 충효분교~충효샘길~충효 암버드나무~광주 호수생태공원 구간에서 열렸다. 또한 초등생과 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백

일장 행사는 우천관계로 13일까지 현장에서 배부한 200자 원고지에 산문·운문을 작성해 광주일보사에 우편접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의 062-220-0541) 아들 삼근(초등 6년)·상빈(초등 3년) 형제와 함께 나란히 자전거 페달을 밟는 이병우(43·광주시 신창동)씨는 "평소 직장일이 바쁘고, 아이들은 학원을 다녀 같이 자전거를 탈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며 "가을비가 제법 내렸지만 도심을 벗어나 자전거를 타면서 가족애(愛)를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 한 건강걷기 참가자는 "일상생활속에서 가사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쉽게 들어보기 힘들다. 내년 행사때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누정 등 코스 주변의 문화재와 '무등산 역사길'에 대해 설명을 곁들여 주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자전거-이응선·윤정미씨 최연소 참가자 가족

### "광주천서 쌓은 실력 맘껏 발휘했어요"

"어른들하고 똑같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어요." '가사문화권 그린 자전거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수백 대의 성인용 자전거 사이로 분홍색과 파란색의 어린이 자전거 두대가 눈에 띄었다. 이번 행사에 최연소로 참가한 이참비(여·8)·서현(남)7남매의 자전거였다. 아버지 이응선(38)씨와 어머니 윤정미(39)씨의 손을 꼭 잡고 참가한 참비 남매는 출발 전부터 기대가 되는지 자신의 자전거를 연신 만지작거렸다. 참비 양은 헬로키티가 그려진 자신의 분홍 자전거를 보여주며 "아빠랑 같이 자전거를 많이 타봐서 오늘도 잘 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힘차게 페달을 밟는 이남매는 어른들 사이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자전거를 많이 타겠다는 남매는 평소에도 주말이면 광주천 등지에서 자전거를 많이 탔다고 전했다.



이응선·참비·서현·윤정미 가족(왼쪽부터).

이 남매가 거주하는 백운동 일대는 자동차가 많아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광주일보가 주최한 자전거 행진은 이 남매에게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머리보호구 등 안전장구는 다 갖췄지만 행여나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한 채 이남매는 무사히 자전거 행진을 마친 후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함박웃음을 내보냈다. 이응선 씨는 "부모로서 항상 안전이 걱정되긴 하지만 자주 야외로 나와 같이 자전거를 탈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못 뺏을걸"

2013-2014시즌 여자프로농구가 10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춘천 우리은행과 안산 신한은행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했다. 우리은행 컷렛(가운데)이 신한은행 수비를 피해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민·이용규 등 프로야구 FA 16명



윤석민 이용규

16명의 선수가 프로야구 FA(자유계약)시장에 나왔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FA 권리 행사를 신청한 16명의 선수를 공시했다. 원소속 구단을 기준으로 KIA 투·타의 핵 윤석민·이용규와 함께 삼성 3연패의 주역 장원삼·박한이, 두산 손시헌·이종욱·최준석, LG 이대형·이병규(9)·권용관, 롯데 강민호·강영식, SK 정근우, 한화 박정진·한상훈·이대수 등 총 16명이다. FA 신청 선수는 오는 16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23일까지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타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후에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15일까지 전구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어떤 구단과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타구단에 속해 있던 FA 선수와 계약을 하려는 구단은 해당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하면 된다. 한편 각 구단은 규약 164조(구단당 획득 선수수)에 따라 16명의 선수 중 소속구단 FA 선수를 제외하고 타구단 소속 FA 신청 선수 중 2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걷기-서울 참가자 김대영·신지원, 김인정·이하윤 모녀

### "예향의 들녘, 남행열차 탄 보람 있네요"

"예향(藝鄕)이자 의향(義鄕), 미향(味鄕)인 광주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전거 한마당 부대행사로 열린 건강 걷기를 위해 서울에서 먼길을 달려온 이들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김대영(42)·신지원(10·한신초 4년), 김인정(38)·이하윤(9·화랑초 3년) 모녀. 아이들이 같은 학원에 다니며 시작된 인연, 엄마들의 성격·예술적 취향도 비슷해 어느새 두 모녀는 언니·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다. 우연히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행사 소식을 접한 이들은 남도의 맛과 멋을 좇아 1박 2일 일정으로 남행열차에 올랐다. 엄마들은 도시에서만 자란 딸들에게 다른 도시의 역사·문화, 시골의 정취를 보여주고 싶어서 5·18 국립묘지와 아시아문화전당(쿤스트 할레), 빗고를 전통 공예 창작촌 등 여행일정을 꼼꼼하게 짰다. 떡갈비와 육전, 상추튀김 등 광주의 먹을거리도 잊지 않았다. 걷기 행사 도중 강한 비바람이 불어 우



김인정·이하윤, 신지원·김대영 모녀(왼쪽부터).

산삼이 부러지기도 하는 등 두 모녀에게 '겨울비'라는 뜻밖의 변수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는 특별한 경험이 됐다. 아이들에게 난생 처음 본 '소풍'도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은 "힘들지 않았다. 비를 맞으면서 걷는 게 오히려 재미있었다"며 "'소풍을 밟으면 하루 운이 좋다'고 하는데 엄마와 함께 한 역사여행 길이 즐거웠다"고 웃었다. 엄마들도 "아이들이 수업에서 평야를 배우지만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아이들과 가을걷이가 끝난 들녘 길을 같이 걸으며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